

주요 자산 요약

8월 21일 오전 9시 기준(전주 대비)



가상자산 시가총액

5,430조

▼ 330 (- 5.73%)



가상자산 총 거래량

257조

▼ 80 (- 23.74%)



비트코인

159,201,000원

▼ 9,046,000 (- 5.38%)



이더리움

6,042,000원

▼ 441,000 (- 6.80%)



USDT

1,397.88

▲ 17.74 (+ 1.29%)



나스닥

21,172.86

▼ 540.28 (- 2.49%)



코스피

3,140.71

▼ 85.81 (- 2.66%)



달러인덱스

98.25

▲ 0.53 (+ 0.54%)

주간 급등 코인

지난주에 샀더라면?

빗썸 원화 마켓 주간 상승률 상위 5개 코인



빗썸 원화 마켓 주간 거래량 상위 5개 코인



* 주간 급등 코인은 2025.8.14 ~ 2025.8.20일 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거래량의 %는 기간 내 빗썸 총 거래량 대비 비중입니다.

주간에 가장 핫했던 기사

신고점 경신 후 출렁이는 가상자산 시장, 눈은 FOMC로 향한다



FOMC

최근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하며 조정 국면을 맞이했다. 신고가 경신 후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에 대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발표한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정책은 연방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에 한정된다고 발언하면서 정부의 비트코인 직접 매입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가장 크다. 또한, 7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흔들렸다. 이에 따라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빠르게 상승했던 시장에는 차익 실현 압력이 심화됐고, 이는 대규모 포지션 청산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 이후 전개된 불확실성도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시적으로 11만 7,000달러(약 1억 6,213만 원) 수준까지 반등했으나 상승 동력이 부족했고, 결국 11만 3,000달러(약 1억 5,707만 원) 선 아래로 무너졌다.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은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에 쏠리고 있다. 파월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단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다. 스콧 렌 웰스파고 글로벌마켓 전략가는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그 신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스 프라이드 글렌미드 투자전략담당도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의 초점은 인하 여부에서 속도와 폭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물가 압력은 완화됐지만, 고용 지표는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어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9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될 가능성을 84.6%로 보고 있으나 연준 내부의 기류는 신중한 상황이다. 10월과 12월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나, 시장 내 의견이 엇갈려 금리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AM Management는 "현재 시장의 정책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복귀 가능성, 통계 신뢰성 논란 등 정치 요인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미국 소매업체 실적과 주택 지표 등이 방향성을 가늠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2,000달러의 기술적 지지선을 하회하지 않고 11만 7,000달러 선을 단단히 돌파할 경우, 상승 탄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BTC 도미넌스가 60% 아래에 안착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알트코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3.69%로 이 기간 중 4.1% 증가했고, USDT는 4.24%의 도미넌스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의 하방 지지선 형성과 알트코인의 반등 시점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미 연준의 스탠스와 글로벌 정세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잭슨홀 미팅 주제가 '전환기의 고용시장'인 만큼 파월이 한발 물러서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꾸준히 영향을 끼쳐왔다. 고점 돌파 이후 조정장을 마주한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역대금 ‘로켓송금’…스테이블코인…

연말연시 글로벌 기업의 시선은 ‘세계의 공장’…



트럼프가 대놓고 밀어준다 다시 불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빗썸에 새롭게 추가된 가상자산



빗썸 인사이트



[이벤트] 제3회 가상자산 입금하고 거래만...

빗썸으로 가상자산을 입금하고 거래만 해도 최대 3천만원을 드립니다.



[신규서비스]안전한 투자를 위한 첫 걸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투자자 보호 알림 서비스'를 오픈...



[안내] 빗썸이 대한민국 대기업으로 지정되었...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에...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썸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